CONTENTS

2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 74
고선환 금산 하천감시단 대표 인터뷰

8 대청호 마을 스토리텔링 20
충북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 장완호 이장님 인터뷰

12 대청호와 함께하는 양서·파충류 1

18 대청호 해설사의 오백리길 이야기 6

24 정책&이슈

28 네트워크 신입팀장 인사 및 사업계획 소개

30 사업보고 - 서화천 유역 수질개선 거버넌스 사업보고
- 회인천 유역 수질개선 거버넌스 사업보고

34 사업보고

35 사무처 신입 활동가 인사글

36 대청호 뉴스&뉴스

38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40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대청호 소식 vol.129

발행일 2021. 5. 31
발행인 최병욱
발행처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편집인 이건희
사무처 이건희, 임정미, 김재곤, 김문석
대청호유역하천센터 이강혁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618-136 대청댐물문화관 2층
전 화 042) 930-7340~1
전 송 042) 930-7342
홈페이지 www.daecheong.or.kr
편집·인쇄 월간토마토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동로 574 2층
042) 320-7151

표지이야기 : 매호마다 마을을 방문하여 이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을을 소개해주는 '대청호 마을 스토리텔링'을 연재하시는 박병춘 선생님이 보내주신 야생화 사진입니다. 하늘색 풀꽃들과 홀로 어우러진 분홍빛의 얼레지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글 **이강혁**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국장

강과 함께 살아온 금산의 환경지킴이

고선환 금산 하천감시단 대표 인터뷰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은 다양한 지역과 분야, 단체에서 대청호 보전을 위해 활동하시거나 소중한 힘을 보태고 계신 분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대청호유역하천센터의 금산 하천감시단 대표를 맡고 계신 사단법인 정심회 고선환(60) 사무국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5월 초에 사)정심회 사무실에서 고선환 대표를 만나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고선환 금산 하천감시단 대표 약력

· 사단법인 정심회 사무국장(현)
· 충남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닥실마을) 이장(현)
· 금산군 장애인 활동 전담지원 인력 관리자(현)
·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금산네트워크 사무국장(전)
· 금산국악관현악단 장구반주자 및 사무국장(현)
· 금산서각회 회장(현)
· 이외 10여개 단체 대표 및 사무국장 현임 및 역임

강과 함께 살았던 어린 시절

- 어린 시절과 학창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고선환 대표의 고향은 충남 금산이다. 금산군 제원면 닥실마을에서 태어났다. 닥실마을은 현재 고선환 대표가 살고 있는 마을이기도 하다. 고선환 대표는 결혼하기 전까지 닥실마을에서 살다가 28세에 결혼 후 경기도 의정부로 갔다. 의정부에서 7년 정도 사업을 하면서 살다가 다시 금산으로 내려왔다고 한다.

그의 어린 시절은 말 그대로 강과 함께 한 시절이었다.

"닥실마을은 닥실나루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옛날에는 배로 금강을 건너다녔는데 그 나루터가 있던 마을이 닥실마을이고 닥실나루라는 이름도 생겨났어요. 어린 시절, 자연 그대로의 금강은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은 천내습지라고 불리는 곳에 아름드리 미류나무 등 다양한 식물들도 많았고 백사장도 넓게 있었어요. 백사장에서는 강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 왔고 나 또한 여름에는 강에서 살았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걸음마를 하면서 수영을 배운다고 할 만큼 강에서 수영하며 놀았어요. 동네 친구들과 물고기 등을 잡아서 어죽을 끓여먹기도 하고 배를 타며 놀기도 하고 금강과 하중도(지금의 천내습지)를 여기저기 누비며 살았지요. 예전에는 안전요원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간혹 안전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강이 꽝꽝 얼었습니다. 강이 완전 썰매장, 스케이트장이 되어서 신나게 강에서 놀았고 얼음 깨서 낚시도 하곤 했지요. 지금은 지구온난화 영향도 있고 용담댐에 담수되어 있던 물이 내려오다 보니 수온이 높아져 어는 일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11월이면 얼음이 얼어서 다음해 2월이 되어야 녹았어요."

제원면에 초등학교는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는 없어서 그는 금산읍으로 통학했다. 고선환 대표는 중학교 입학식이 있던 날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고 한다.

"당시 제원면에서 금산읍으로 통학하는 학생이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원면에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딱 1대다 보니 그 버스를 놓치면 학교까지 걸어가야 했어요. 그래서 시내버스에 약 150여 명의 학생들이 매달려가다시피 했습니다. 운 좋게 좌석에 앉으면 친구들의 가방이 수없이 쌓여서 숨을 쉬기가 힘들기도 했구요. 도시락 김치 국물이 옷으로 흘러내리기도 하고…….(웃음)"

사단법인 정심회와 맺게 된 인연

- 정심회와 만나게 된 과정 등에 대해 여쭤 보았다.

결혼 후 의정부에서 살다가 그가 다시 금산으로 귀향한 것이 1997년이다. 고선환 대표는 그때 사단법인 정심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사)정심회는 장애인의 인권, 복지라는 개념이 제대

로 정립되기 전인 1985년에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한 자조모임으로 창립되었다.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가 미약해 지역의 뜻있는 장애인들이 모여 서로 도우며 스스로 자립해보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회원 20명으로 시작해 현재는 500여명이 넘는 회원이 있다. 처음엔 회원들이 파지나 공병을 팔아 기금을 마련했다고 한다. 회원들의 뜻이 알려지며 차량지원 등 지역의 손길이 이어졌고 자립이 목표이다 보니 별도의 후원금 없이 기금을 스스로 마련했다. 한푼 두푼 모아진 기금으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금산의 대표적인 장애인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선환 대표에게 장애를 갖게 된 사연을 조심스럽게 여쭤 보았다.

"돌 무렵에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예전에는 소아마비로 죽거나 장애를 갖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머니가 나를 살리려고 업고서 병원까지 걸어서 가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소아마비 예방접종도 치료제도 없었어요."

고선환 대표는 처음에는 정심회에 1주일에 한두 번 나가서 업무에 도움을 주었고 행사가 있으면 이것저것 실무를 맡아서 일을 하였다고 한다. 구체적인 직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회원으로서 자원봉사를 한 것이었다. 그 이후에 총무 역할을 맡다가 어느 때부터 명칭이 사무국장이 되었다. 총무와 사무국장이라는 직함을 달게 된 것도 25년이 훌쩍 넘었지만 이 또한 직원이라기보다 자원봉사에 가깝다. 하는 일은 많지만 급여로는 약간의 활동비를 받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인삼 등 여러 농사도 짓고 홍삼 제조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돈은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그의 말에서 돈 욕심, 재물 욕심 없이 살아 온 삶을 느낄 수 있었다.

장애인 및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살다
- 금산지역에서 하고 계신 일들을 여쭤 보았다.

고선환 대표는 현재 정심회 사무국장 외에 다양한 10여개 단체의 대표 또는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활동 전담지원인력 관리자로 활동하고 있고 제원면 저곡리 닥실마을 이장을 맡은 지도 6년째가 되었다. 다양한 역할 중 대표적인 것을 꼽아달라고 하니 꼽은 것이 금산국악관현악단과 금산서각회이다. 그는 금산국악관현악단에서 장구 반주를 하면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 금산서각회 회장을 맡고 있다. 서각은 정심회 회원들과 함께 배우고 가르친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은 수준급으로 그동안 각종 대회에서 우수상 등 여러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고선환 대표는 여러 가지 직함을 갖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과 주민들의 손발이 되어 힘든 일을 도맡아하기도 하는 등 도움을 주고 있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8년 전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의 옆에서 오래 함께 일 해온 금산네트워크 김청자 팀장이 목소리를 높이며 얘기해 주었다.

"고선환 대표님은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의 손발이 되어주고 있어요. 마을 주민 대부분이 연로한 분들입니다. 보통 이장들이 이런 저런 지원이 있으니 신청하라고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님은 주민이 면사무소에 갖다가 내면 되도록 서류를 다 만들어 챙겨 드리고 있어요. 다들 농민들이다 보니 직불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한글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주민들은 직접 신청서류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고선환 대표님이 마을회관에서 직접 신청서류를 작성해 드리고 도장까지 찍어 드립니다. 이렇듯 주민들을 돕다 보니 소문이 나서 언제부턴가는 정심회 회원들도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사무실로 찾아오십니다. 장애인 분들이 댁으로 온 보조금 신청서 우편물을 들고 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다 알아봐주고 서류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심지어 정심회가 아닌 다른 장애인 단체 회원들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며칠 동안 알아봐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 뿐만 아니라 한 빌라의 관리인이 수도요금 분배 계산이 어렵다며 사무실로 찾아오면 호수별로 요금을 계산해 드리고 있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취업서류 작성도 도와주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오면 그 사람에 맞는 도움을 주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대표님이 하시는 일이 엄청 많아요. 저는 정말 본받을 점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선환 대표는 다양한 단체의 일들은 하는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자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어떤 직함을 맡는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 투명한 회계 관리와 지속적인 홍보와 감사 문자 등을 보내는 것입니다. 회계 관리를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투명하게 하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감사의 표시를 하는 등 홍보를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환경을 위해 하는 다양한 노력들…
- 하천감시단 활동, 금산네트워크 활동 등에 대해 들어 보았다.

고선환 대표는 지난해까지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금산네트워크 사무국장도 역임하였다. 그리고 2017년부터 금산 하천감시단 대표도 맡고 있다. 그동안 환경과 관련하여 활동해오면서 느낀 점들을 묻자 주민들, 회원들이 환경에 관심이 많아지고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줄어든 것을 꼽았다. 지속적으로 하천감시단과 하천감시조사 활동을 하고 마을 주민들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씩 성과가 난 것이다.

외래식물인 가시박 제거 활동 또한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처음에는 가시박 제거 활동도 금산에서 우리 단체만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다른 단체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더 많은 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심회는 빠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금산군에서 정심회가 빠지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사진 찍어 올리려고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요. 회원들은 가시박 퇴치를 위해 정말 열심히 사업에 참여합니다. 2020년에는 복수면 유등천 양안 20Km의 가시박을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열심히 해 온 결과 금산군 등 기관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어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는 마을과의 지속적인 교류로 마을 이장 및 주민들과의 유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네트워크 참여 마을 이장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고 있고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제원면 명곡2리 바리실마을의 쓰레기 실명제를 모범적인 예로 들었다.

“바리실마을의 경우 마을 쓰레기장을 영구폐쇄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재활용 쓰레기와 폐기물은 따로 분리하여 폐기물은 마을기금으로 유상 처리하고 재활용 쓰레기는 모아두었다가 주 1회 정한 날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주민들도 이제는 모두 적극 동참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 당일 마을회관으로 가져오면 이장님이 쓰레기봉투에 이름을 기재하고 새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 환경교육, 금산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생태 체험교육, 마을주민 환경교육, 주기적인 하천정화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와 함께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
- 기후변화 등 환경현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고선환 대표는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해 묻자 바로 지난해의 장마 얘기를 꺼냈다.

“지난해에 다들 아시다시피 역대 최장의 장마가 기록되었어요. 올해 꽃 피는 시기가 앞당겨진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일상에서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집중호우 때 용담댐이 방류되어 용담댐 하류 지역 주민들이 많은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장마, 집중호우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이지만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는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인재입니다. 아직도 피해조사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고통이 해소되도록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또한 기후변화가 농사에도 큰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매년 다양한 작물에서 냉해가 발생하고 있어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고선환 대표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와 함께 해야 할 일이 참 많다고 하면서 이야기 하였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차원에서는 본부 사무처에서 잘 이끌어 주었으면 합니다. 좋은 정책과 사업을 마련하고, 여기에 각 지역네트워크가 함께 발걸음을 맞추고 사업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냈으면 합니다.”

그는 또 하천감시단 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을 시범적으로 가입하는 것, 각 네트워크 팀장에 대한 지원 개선 등 구체적인 제안도 덧붙였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가는 줄 몰랐다. 그만큼 즐겁게 공감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동안 금산에서 주민들을 위해 손과 발이 되어온 활동가의 자취를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글 **박병춘** 대전대신고등학교 교사

“우리 마을은 원체 살기 좋은 동네여유~”

충북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 장완호 이장님 인터뷰

대전에서 금산IC를 지나 충북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에 도착했다. 5월 신록과 마을의 고요가 만나 평화롭기만 했다. 특히 금강으로 흐르는 하천 변 윗자락에 마을이 형성돼 강바람이 살갑게 불어왔다. 마을 집집마다 어여쁜 꽃들이 피어나고 오월 신록이 병풍을 이뤄 누가 봐도 살기 좋은 마을이란 느낌이 강렬했다.

지난 5월 8일 오후 2시, 봉곡리 장완호 이장(62)님을 댁에서 만났다. 임진왜란 때 순절한 이의정 장군(1555~1593)의 유적지 바로 아래가 이장님의 댁이었고, 장완호 이장님은 장군 같은 기개로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잠시 이의정 장군의 역사적 자취를 들여다봐야겠다. 비문에 적힌 내용을 옮겨 적는다.

봉곡리 유적지는 임진왜란 때 순정한 이의정 장군의 유적지로 묘소와 신도비 및 충의사가 함께 있다. 묘소는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여 옷과 신발만이 묻혀 있다고 전해지며, 2기의 망주와 상석, 묘갈비를 갖추고 있다. 신도비는 송환기가 글을 짓고 강택중의 써 새긴 것을 순조 원년(1801년)에 묘 앞에 세웠다. 묘역과 삼문 사이에 있는 충의사는 사당 역살을 하는 건물로 1996년에 건립되었다. 유적지 인근에는 이의정을 충정을 기리기 위한 정려각이 별도로 건립되어 있는데 경종 2년(1722년)에 명정(命旌)되었다.

이의정은 고려 후기의 문인 이규보의 8대손이며, 예조판서 장의 손이다. 율곡 이이 문하에서 수업하였고, 1588년 무과에 급제하여 예진시를 거쳐 보령현감으로 부임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집하여 진주로 달려가 참전하였다. 1593년(선조26년) 6월 제2차 진주성 싸움에서 김천일, 최경회 등과 더불어 최후까지 싸우다 왜적이 진주성 남문을 깨뜨리고 들어오자 남강에 투신, 순국하였다, 당시 순국한 의병장들과 함께 진주 충렬사에 봉안되었다.

기개와 충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의정의 기운이 봉곡리에 퍼져 있는 느낌으로 장완호 이장님을 만났다.

“오늘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탈춤 공연을 했어요. 이게 오늘 찍은 사진입니다. 호응도 엄청 좋았고 신나고 마을 화합이 자동으로 되지요.”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그 표정이 소년처럼 해맑기만 하다. 양주 별산대 놀이 대본을 보았고, 그 대본에 따라 이장님이 하는 역할도 들었다. 물론 이장님이 쓰는 탈도 보았다. 이후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1주일에 두 번씩 주민들과 함께 모여 탈춤을 연습하고 거리 공연을 선보인다. 3년 전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신청한 프로그램이 통과돼 지난해에 운영 자금을 받아 올해 행사로 탈춤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영동군에 없는 희귀한 놀이문화를 확산하고 싶었다는 장 이장은 어색하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여 기분이 좋다고 강조했다.

탈춤에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은 15명 내외로 양주 별산대 놀이에 푹 빠져 있다고 한다. 마을 회관은 탈춤판으로 흥이 돋고 60대, 70대 등 마을 주민이 모여 화합의 잔치가 지속돼 동네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게 장 이장의 평가다.

봉곡리는 꽃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에 꽃을 많이 심었다.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게 볼 수 있게 호박 덩굴 올리는 일도 함께 했다. 하우스 파이프를 만들고 봉곡리에서 분소된 지역인 서독골에 호박 덩굴 하우스를 지어서 호박을 심었다. 주민 80여 명이 참여했고, 결과도 좋아 마을 주민은 물론 외지인들도 감탄사를 보낸다.

봉곡리 마을 자랑을 원했다. 옛날에는 여씨 장씨가 아래 윗마을에 살았는데, 서로 대화가 부족했고 경쟁도 심했다. 지금은 그야말로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봉곡리의 다양한 마을 행사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가까워지고 내 집 네 집 없이 그저 신뢰하고 화합해서 좋다고 강조했다. 어딜 가나 화합 단결하고, 마을 사업 관련 방송을 했다 하면 열일 마다하고 참여하여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는 마을이다. 토착 주민은 물론 외지인들까지 한마음으로 뭉치니 무슨 일이든 수월하게 해결된다.

봉곡리에는 80여 가구 220명 거주하고 있으며 주로 수박하고 복숭아를 재배한다. 농사 규모가 상당히 크고 판로도 좋아 마을의 수입원으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놀랄만한 사실이 있다. 필자가 그 동안 다양한 이장님들을 만나 인터뷰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장완호 이장님은 외지에 나가 단 하루도 일한 적이 없다. 한평생 봉곡리에서만 살아온 진정한 원주민이기 때문이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봉곡리 본토박이로서 마을 안정을 위해 노력해 온 산증인이다.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 출발점은 바로 효심이다. 장 이장은 오직 농사에 전념하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섬기며 고향을 지켜온 것이었다. 그 과정을 함께 한 부인에게 고맙기만 하다며 진심을 전했다.

봉곡리는 그 역사적 유래가 불분명하나 주막이 여섯 군데나 있었다고 한다. 먹고 살기 힘들 시절에 주막이 여섯 군데나 있었으니 애주가들이 그만큼 많았으리란 반증이다. 1980년대 군 제대 후 고향에 왔을 때도 아버지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바지 저고리를 입고 춤 추고 술 마시는 장면을 자주 보았다고 한다. 봉곡리는 벼농사에서 특수 작물로 농사를 바꾸고 발전을 거듭했다. 장 이장의 강조 사항이 있었는데, 마을 주민 220명 중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두 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만큼 세상이 변하고 좋아졌다는 강조였다.

봉곡리 이장 4년째로 그 어느 때보다 마을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협조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한다. 장 이장은 독거 노인을 위한 부녀회원들의 노고와 봉사를 특히 강조했다. 많은 양의 김치를 양산면 60곳에 기증하고 함께 잘 사는 대동단결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글 **문광연** 한국양서파충류학회 이사

큰산개구리, 주원천에서 길을 묻다

주원천의 상류 계곡입니다

3, 4월이면 많은 꽃이 핍니다

신록이 아름다운 세천저수지입니다

해발 598m인 식장산은 대전시청을 중심으로 보면 남쪽 방향에 높이 솟아 있는 산입니다. 동쪽으로는 계족산이, 서쪽으로는 계룡산이, 북쪽으로는 금병산이 있습니다. 대전을 비행기로 타고 지나가면서 본다면 접시 모양의 분지와 가장자리는 산으로 둘러 쌓인 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제 시대에 군량미를 많이 보급했다는 의미에서 식장산(食藏山)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산의 정상 아래인 독수리봉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크게 두 곳에서 내려옵니다. 이런 물줄기들은 주변의 물줄기와 합쳐져서 큰 줄기를 만들어 흐릅니다. 식장산은 나무가 많으며 흙이 수분을 보관하기 쉬워 사시사철 물을 보관하며 흘러내립니다. 물이 많으니 나무와 풀이 풍부하고 나무와 풀이 많으니 새들이 찾아와 집을 짓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곤충과 물고기, 대형 육식동물들이 많습니다. 중간계곡에는 큰 바위와 작은 바위, 모래가 적절히 혼합되어 물의 흐름을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약하고 낙엽이 쌓인 곳을 보니 도롱뇽 알과 개구리알들이 보입니다. 개구리나 도롱뇽들은 용쾌도 물의 흐름이 약한 계곡의 정수지에 알을 낳아 떠내려가지 않게 붙여둡니다. 이런 계곡의 옆에 3월이 되면 가장 먼저 노란 산수유, 생강나무가 꽃을 피웁니다. 봄을 영어로 Spring이라고 하지요. 참 잘 지은 단어 같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새싹이 Spring처럼 올라오고 있으니깐 말이지요.

두 곳에서 출발한 물줄기는 세천저수지 위쪽에서 만나 하나로 되어 저수지로 유입됩니다. 1934년에 축조된 세천저수지는 대청댐이 생기

기 전까지는 대전시민들의 상수원으로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오염시설이 없는 식장산의 청정수로 대전시민들이 먹은 것이지요. 지금은 대청댐 물을 먹고 있지만요. 세천저수지 주변을 걷고 있노라면 충북의 괴산댐에 산막이 옛길과 청송의 주산지가 생각납니다. 물 위에서 한가롭게 노는 잉꼬부부와 오리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런 생각이 더 납니다. 언젠가 저수지 주변을 걷고 있는데 두 마리의 수달이 장난을 치면서 지나갔습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세천저수지 주변에는 물을 좋아하는 버드나무들이 많아서 봄이면 연두색의 물감을 풀어 놓은 것 같습니다. 버드나무들은 동남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맹그로브 나무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물을 정화해주고 산소를 내면서 탄소도 없애주니까요.

2021년 2월 21일 세천저수지 아래를 지나가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수지 아래에는 작은 보가 있는데 보 아래에 짝짓기한 큰산개구리(북방산개구리)들이 모여서 보를 올라가기 위해 안간

저수지 아래보는
개구리의 이동을 차단합니다

개구리사다리의 모습입니다

널판지로된 개구리사다리에 개구리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보 위에는 물이 고여 있어 그곳으로 가야만 알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 아래 모여서 짝짓기한 큰산개구리들은 보를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지만, 매번 실패하고 오르고 또 오르려고 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나는 몹시 속상했습니다. 고민 끝에 생각해낸 것이 개구리들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개구리사다리'를 설치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개구리사다리' 설치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의 도움을 받아서 보의 양쪽에 '개구리사다리'를 설치했습니다. 사다리를 설치한 후 개구리들이 잘 올라가는지 보았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수컷이 '개구리사다리'를 통과하는 데는 2, 3초, 짝짓기한 한 쌍이 통과하는 데는 5, 6초 걸립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개구리들에게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해결되었습니다.

보 아래의 계곡은 큰산개구리들이 겨울잠을 자는 장소입니다. 이런 곳에 오염물질이 유입한다든지 보가 높으면 큰산개구리들의 번식에 큰 지장을 줍니다. 자연은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큰산개구리는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입니다.

보 아래의 계곡 주변에는 왕벚나무가 많습니다. 오래된 왕벚나무에는 구멍이 많아서 물가의 철새들에게 좋은 번식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해

계곡주변 왕벚나무는 새들의 서식지입니다

큰산개구리 수컷입니다

마다 이곳에는 호반새나 동고비들이 집을 짓고 새끼를 키웁니다. 이런 새들이 오래 머무르면 좋겠습니다.

저수지와 보를 지난 물은 마을 주변을 돌아 내려갑니다. 세천유원지가 개발되면서 이곳부터 주원천은 오염이 시작됩니다.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는 모아서 대전시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요즘 탐방객이 많아서 휴지나 먹고 버린 음식물들이 오염의 주범이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곳을 지나면서 하천을 정비하려고 강둑을 직선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둑을 만듭니다. 이것은 하천을 살리고 강둑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생태계를 단순화시켜는 것입니다. 하천 주변의 생태계에 단절을 가져오며 물의 흐름을 빠르게 합니다. 뚝을 흙으로 하는 방법도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돌고 돌아 물은 세천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맑고 깨끗하여 세천이라고 했습니다. 경부선이 지나는 세천역 아래에는 세천터널이 있는데 물은 이곳을 지나갑니다. 터널의 한쪽은 물, 한쪽은 차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너무 좁아서 큰 장마가 오면 위험해 보입니다. 최근에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천초등학교 앞을 지나서 아래로 아래로 흐릅니다. 세천초등학교 주변의 주원천은 인간의 간섭이 가장 심한 곳입니다. 하천의 가장자리를 시멘트로 하여 직각으로 설치해놓았습니다. 직각의 시멘트벽은 하천과 주변의 생태를 완전히 단절시킵니다.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구간은 원래의 하천으로 돌려주면 좋겠습니다.

주원천둑이 시멘트로 덮히면서 생태계가 단절됩니다

주원천 가장자리는 경사가 급하여 생태가 단절됩니다

세천과 대청동 주변을 지나는 물들은 또 다른 위협을 느낍니다. 하천 주변의 논과 밭에는 제초제, 비료, 농약등이 문제가 됩니다. 논과 밭에 뿌려진 이런 물질 속에는 질소와 인이 많아서 하천과 대청호의 물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물은 흘러 흘러 고속도로와 신상교 아래를 지나서 대청호로 유입됩니다. 이런 물을 우리는 먹고 있습니다. 대청호는 대전시민과 청주시민의 젖줄입니다. 물, 공기, 땅이 오염되면 인간의 삶은 보지 않아도 알겠지요. 주원천에서 큰산개구리에게 길을 묻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세천저수지 아래에서 큰산개구리와 설레는 만남을 기대해봅니다.

※ 참고문헌

『개구리 도롱뇽 그리고 뱀 일기』_지성사, 문광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나무 이야기』_지성사, 유기억

글 여규용 6기 대청호 해설사

명상공원길, 마산동산성길

처음 그대로 지키면 될 것을…

마산동 관동묘려

봄의 기운이 한창일 무렵 대청호반을 다시 찾았다. 언제나 어떤 곳을 찾게 되면 어떤 모습일지 머릿속에 그려보며 찾게 된다. 산과 들은 어느새 봄기운이 가득하여 연초록 잎들이 다투어 피어나기 시작을 하였다. 우리 고장의 산야 특히 이곳 대청호를 중심으로 한 풍경이 그림 같음에 더 없이 고마운 마음이다.

먼저 호수 낭만길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명상공원길을 찾아본다. 이곳은 드리마 '슬픈연가' 촬영지로도 유명하여 평소에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작년 처음 이 길을 걸을 때 이것을 '명상공원길'이라는 이름으로 정비하고 있는 것을 보았었다. 어찌 변했을지 기대를 가지고

마산동길

찾았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 호젓하고 조용하기만 하던 곳을 민 대머리 동산으로 만들어 놓았다. 우거져 있던 숲을 밀어 버리고 영화 촬영 안내판 등으로 장식을 하고 돌담과 방부목으로 전망대도 아닌 장난감 같은 조형물도 만들었다. 더욱 아쉬운 것은 화단의 꽃들이 조화로 장식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생명력 없는 공원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사라져 버린 우거진 숲과 그곳에 살던 각종 생물들은 삶의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더군다나 이곳은 500만 대전, 청주, 세종 시민들의 식수원이기도 한 곳 이라 더욱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요즘 우리는 심심치 않게 기후변화에 대한 뉴스를 접하게 된다.

나도 대청호 해설사로 활동하며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렇게 둘러보며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더욱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게 된다. 지금 세계는 지구 온난화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재까지 지구의 온도는 약 1°C가 올랐고 100년 후에는 2~3°C가 오른다고 한다. 온도가 1°C가 올라가면 전체 생물의 10%가 2°C 올라가면 25%쯤의 생물이 사라진다고 한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나라마다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무를 베고 숲을 없애 버린다니 이것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행정이 아닌가 싶다.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일이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고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잊어서는 않된다. 그러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활동 중에 물 환경을 지키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다. 그러

기에 더욱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사라져 버린 나무와 숲을 보니 너무 큰 아쉬움이 들었던 것이다. (소나무 1그루는 1년에 5kg의 탄소(CO_2)를 흡수한다고 한다.) 잠시 보기만 좋은 공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키고 관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잘 확인하고 시민들에게 좋은 쉼 공간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식수원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은 좋지만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함께 지켜가는 일을 누구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민둥 공원이 되어버린 이름만 좋은 명상공원길이 되지 않으려면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알뜰하게 지켜가야 할 것이다. 가지고 온 쓰레기들은 꼭 되가져 가고 누군가 함부로 개념 없이 어지른다면 지적하고 주의를 주어 지켜가야 할 것이다. 한참을 머물며 생각을 정리 하다가 털고 일어나 돌아 나오며 많은 생각에 잠간다.

마산동산성길 쓰레기

두 번째 걷기 코스인 마산동 산성길로 향한다. 아침부터 내리는 봄비는 추적추적 쉼 없이 내리고 있다. 이곳 대청호 주변에는 많은 산성들이 산재해 있다고 한다. 그만큼 지리적 요충지였고 백제와 신라, 고구려의 격전장이기도 했다는 뜻일 것이다. 걷는 길엔 연분홍 진달래꽃이 반갑게 맞아 준다. 파릇하니 돋아나는 새싹들이 아름답다. 마산동 산성 입구에서 잠시 머뭇거린다. 빗길에 미끄러운 길이라 안전을 대비하여 산성 오르기는 다음으로 미루고 편안한 자동차 길을 이용하여 걷는다. 호수가 만들어 지며 물속에 잠긴 마을 이야기부터 곳곳에 버려진 양심을 보며 토론을 이어 간다. 지속가능한 환경 돌보미의 역할이 무엇인지? 왜 사람들은 버리는 것에 익숙한지, 그러면서 본인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는 왜 그리 엄격한지?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생각 하며 착잡한 마음이 이어 진다.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은 것이라는 것은 모르지는 않을 터인데 말이다. 이런 저런 생각으로 숲속에 접어드니 그래도 마음을 맑아진다. 비록 숨소리는 거칠어지고 들고 있는 우산의 무게가 제법 느껴지기도 하지만 숲은 제 살을 내어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고 있다. 폭신하게 느껴지는 낙엽길이 참 좋다.

노랗게 피어있는 생강나무 꽃에 코를 대어 냄새를 맡아 보기도 하고 유난히 진한 분홍색의

마산동산성 입구

진달래꽃을 유심히 바라보기도 하며 걷는다. 능선을 따라 걷다 보니 단아 하면서도 품위가 느껴지는 오래된 한옥 하나가 눈앞에 나타난다. 이곳이 '관동묘려'란다. 이곳은 1994년 6월7일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37호로 지정된 곳으로 열녀문을 하사 받은 썽청당 송유선생의 어머니 유씨부인이 문종 2년에 돌아가시자 이곳에서 장례를 지내고 그 옆에다 만든 재실이다. 문이 잠겨있어 들어가서 살펴 볼 수는 없었지만 여기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효를 가르치고 조상 섬김을 깨닫게 하는 소중한 장소라 할 수 있다. 잠시 이곳에서 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대청호가 우리의 식수라는 사실을 망각 하고 자꾸만 무언가를 만들려는 사실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대청호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찾아 잘 보존 하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제는 잘 포장 된 길을 따라 걷는다. 간간히 눈에 뜨이는 버려진 쓰레기들이 여기서도 제일 많이 눈에 들어 온다. 어느 곳 이든 사람이 머물고 간 자리는 어김없이 어지럽혀 있고 그래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한참을 걸어 내려오니 '미륵원지'라는 커다란 안내표지석이 눈에 뜨인다. 그러잖아도 전부터 이곳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던 터라 관심이 컷던 곳이다. 지금 건물은 수몰된 곳에 자리하고 있던 것을 이곳으로 옮겨 지은 것이라 한다. 이곳 미륵원지 안에 있는 '남루(南樓)'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한다.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보부상들과 선비들에게 날이 저물면 이곳에서 끼니와 잠자리를 무료로 제공하였다고 하니 그 시절 참 대단한 나눔이 아니었나 싶다. 남루는 회덕 황씨 1대부터 3대까지 약 110여년에 걸쳐 운영 되었다고 한다. 우리고장에 이런 나눔의 문화가 일찍부터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시설들을 그냥 지나치는 역사적 사실로만 전해 가도록 할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후세와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배움의 장이 되도록 개방하여 관리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 우리세대에는 예전처럼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많이 퇴색하였다. 이토록 자랑하고픈 역사적인 장소와 자료들이 참 많다. 그냥 이런 곳이 있었고 이랬다더라 하고 말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신을 이어 받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각자 삶의 가치를 재정립할 수 있는 배움의 장, 나눔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번 걷기도 마지막 끝자락에 다다랐다. 어느새 비는 그치고 상큼한 봄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힌다. 자연 속에서 보낸 하루가 참 기분 좋다. 이렇게 우리는 자연이 주는 커다란 혜택을 느끼며 건강하게 사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무심하게도 버리고 망가트리고 함부로 대하며 고마운 줄도 몰랐으니 얼마나 미안 한 일인가?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주고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게 한다. 할 일이 참 많다. 지구환경을 생각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먹는 물 환경을 지켜가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이러한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동참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꾸만 타성에 물들어 가는 내가 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야 할 것이다. 이번 대청호 걷기를 마무리하며 참 많은 것을 느꼈다. 반성도 많이 했고 고마워도 했다. 우리 대청호 해설사 선생님들께서도 '행복플로깅' 이라는 팀을 만들어 한 달에 몇 번씩 대청호변을 걸으며 버려진 쓰레기들을 줍는 활동을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다.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다. 또한 '사진문학팀'도 있어 대청호를 중심으로 변화해 가는 대청호의 모습을 꽃과 풍경사진으로 남기는 작업을 한다. 시간이 가면서 사라지는 모습을 남겨 보기 위함이다. '오백리길 걷기팀'은 두 발로 대청호변을 걸으면서 보호활동을 한다. 무엇이 만들어 졌고 어떤 변화가 생겼으며 어찌 하야 할지를 토론하고 정리를 한다. '교재개발팀'도 있다. 단순한 물 환경 교육에서 벗어나 기후변화에 대비한 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좀 더 깊이 있는 해설사 활동을 하기 위함이다. 여기에는 실생활에서 차지하는 생활습관이 얼마나 큰 환경오염을 유발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자료가 담기게 될 것이다. 각 팀별 활동을 두 달에 한 번씩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활동 상황을 나누고 공유한다. 이렇게 끈임 없이 공부하고 노력한다.

이런 우리의 활동들이 지금은 미약하겠지만 우리 고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만큼 커다란 보람이 있을 것이다. 누가 시켜서가 아닌 우리 스스로 나서서 우리가 지켜야 할 환경에 대하여 노력하는 것이기에 더욱 보람을 느낀다. 우리 해설사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 전하고 싶다. 지금처럼 한마음으로 오래도록 함께 하고 싶다.

미륵원지 남루모습

글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은 용납될 수 없는 방사능 테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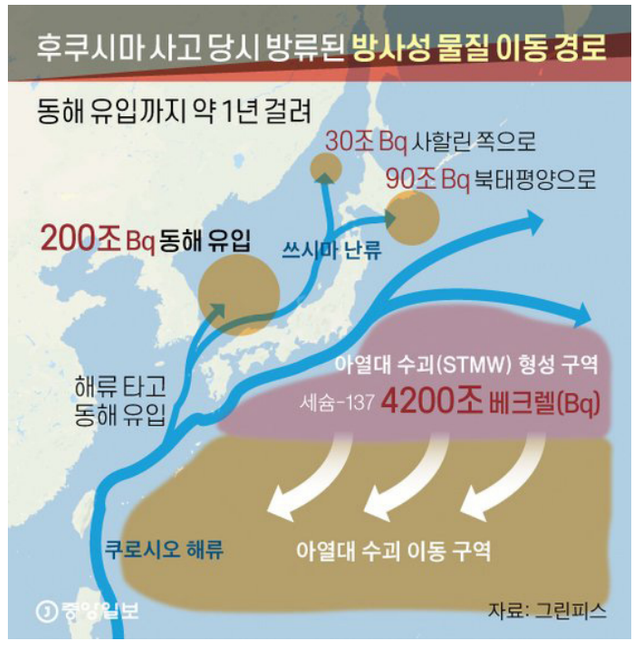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란 전혀 없고, 양국간의 불신을 악화시킬 것이다."

이 말은 1993년 '러시아 해군 핵폐기물 투기사건'으로 러시아가 핵잠수함에서 쓰던 중고원자로 등 핵폐기물을 비밀리에 동해에 방출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 일본이 한 말이다. 하지만 "핵폐기물 투기 완전 금지해야"한다던 일본의 그 말을 이제 똑같이 일본에 돌려주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 4월 13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을 결정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총리는 "처리수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잘못된 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 말했지만 이는 지구 생태계와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의 예고에 불과하다. 자국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를 공식적으로 선포한 셈이다. 일본정부의 후안무치에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다. 핵발전 사고라는 거대 참사가 일으킨 재앙을 수습은 커녕 오염을 확대시키려는 일본정부의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방사능 핵종은 제거도, 희석도 안된다.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20년~30년에 걸쳐 방류할 것이며, 다핵종제거 시설(ALPS)을 거쳐 '처리수'로 만들면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오염수에 들어가는 핵종들이 제거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 쌓여진 125만톤의 오염수의 70% 이상에서 기준치 이상의 고농도 방사성물질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셔도 될 만큼 안전하다는 말은 거의 망언에 가깝다. 거기다 체내에 들어오면 뼈에 흡착해서 골수암과 백혈병을 유발하는 스트론튬의 경우 기준치의 2만배 이상이 검출되고 있다. 암과 백혈병을 유발하는 삼중수소는 제거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2차 정화처리를 통해서 방사선핵종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겠다는 허언을 남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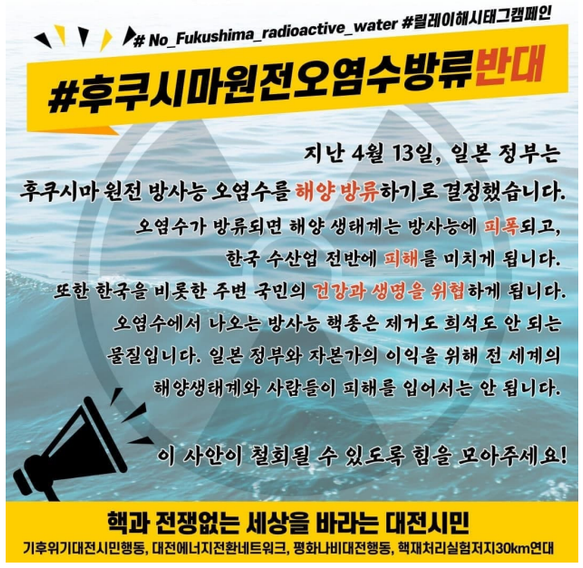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주요 요인은 경제성이다. 이미 오염수 처리문제를 두고 여러 기술과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환경과 안



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비용합리성만을 두고 판단한 것이다. 보다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일본 시민사회가 제시한 대형탱크 보관이나, 모르타르 고체화 방안[1]은 결국 무시되었다. 처리 비용을 우선에 둔 값싼 결정대로 방류된 오염수는 결코 회수할 수 없다. 그렇게 방출된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농도를 낮출 수도, 제거할 수도 없는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인근 바다를 거쳐 태평양 해역을 오염시킬 것이다. 우리 해역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한국정부는 시급하게 국제공조를 추진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야 한다.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되는 어민들과 관련 지자체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한국정부가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국제법 제소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하나 1년 반이 넘은 시간 동안 정부의 TF팀은 무슨 일을 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내 해협에 방사능 유입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 해양방출에 따른 국내 영향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식의 사후적 대응은 사태를 해결하는 것과 어떠한 관련도 없다. 사후 대응이 아닌 오염수 해양방출을 사전에 막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한국정부가

[1] 오염수를 시멘트와 섞어 모르타르 고체화하여 콘크리트 탱크 안에 보관하는 방법. 고체화된 모르타르 안에 삼중수소를 차폐할 수 있어 바다와 지하수 유입을 막을 수 있고 고체화된 삼중수소는 일정하게 차폐할 수 있음.



새로운 양자협의 개최를 제안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논의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현재 대전의 핵재처리 실험, 한국 핵발전소 주변 환경문제와 주민건강, 이주문제까지 포함한다. 핵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핵발전과 핵무기의 폐기까지 이어져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전쟁과 핵이 없는 세상을 물려주는 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반대 서명하기 https://wecangreen.org/FUKUSHIMA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반대 온라인 캠페인

글 김유선 대전네트워크 팀장

지속가능한 푸른 환경을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대전네트워크 담당자 김유선 활동가입니다.

모든 분들을 만나 한분 한분 인사를 드려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일상이 달라졌지만 자연은 올해도 예쁜 꽃이 피는 봄을 지나 초여름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푸른 나무와 하늘을 보시며 잠시 휴식의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8년도쯤에 대학교를 다니던 중 좋은 기회로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마침, 대전NGO지원센터에서 공모한 청년활동가 공익활동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환경단체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에 무관심하던 제가 환경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활동을 하면서 환경의 가치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환경운동연합의 가치인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하게 환경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푸른 환경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저희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대전네트워크는 올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사라져가는 둠벙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꾸준한 둠벙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청호 인근지역 선진지 견학을 통해 네트워크 실무자들의 역량강화 및 마을 주민들과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일이 미숙할 수 있지만 이번 네트워크를 맡은 만큼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글 전선영 청주네트워크 팀장

실천하는 활동가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골마을에서 신나게 뛰어놀며 산으로 들로, 그리고 여름이면 냇가에서 자연이 놀이터였던, 생태감수성 충만한 청주네트워크 신입활동가 전선영입니다.

'나는 꼭! 환경운동을 해야겠다'는 마음보다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활동으로서의 직장으로 환경단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을 2021년 2월1일에 했으니 어느새 단체 안에서 보낸 시간이 3개월 보름,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고, 지구환경의 보존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지구를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활동이라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환경에 대한 올바른 시선을 갖춘 활동가로서 가정, 일터, 지역사회의 환경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충청지역 250만 시도민들이 생명수로 사용하고 있는 대청호의 수질과 생태계가 보전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활동가가 되고자 합니다.

2021년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청주네트워크의 주요사업을 소개합니다. 청주네트워크는 유역공동체의 상생발전과 물환경개선을 위한 정책현안 대응 등을 추진하고,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 대청호 그린뉴딜 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 문의권역 소유역협의체 활성화 및 강화를 통해 주민참여형으로 모든 활동을 전개하고 기관·단체·마을간 유기적 협력으로 대청호 물환경 개선 및 맑은물 보전에 기여하고자 6개의 실천적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 중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청호보전청주네트워크 운영 및 문의권역 소유역협의회 운영
- 대청호 하천돌봄이 운영 및 주민참여 하천관리활동 전개
- 마을하천 가꾸기
- 대청호 맑은물 한마당 개최
- 하천생태문화행사 추진
- 대청호권역 정책대응 및 상생발전방안 마련

이와 같은 사업을 네트워크 사무국 중심이 아닌 참여 기관, 단체, 마을이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관·단체의 지원, 마을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활동이 되도록 올해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글 임정미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사무처장

2021 서화천유역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거버넌스 시동

민·관·학계 공동노력
“마을환경개선 위한 실천력과 주민지원정책 중요”

서화천-용지리

서화천-월전리

대전충청권 450만여명의 생명수인 대청호가 좀더 맑은 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옥천에서는 서화천 수질개선 거버넌스가 시동을 걸고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민단단체지원사업으로 시행되는 서화천 수질개선 거버넌스는 지난 3년동안 구축해온 거버넌스 운영위원회를 재위촉하고, 4월16일 환경리더 및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가졌으며, 그동안 실천활동에 참여했던 서화천유역내 마을 5곳에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쓰레기제로마을만들기에 참여할 2곳 선정 등 총 7개의 마을과 함께 주민환경의식 고취 및 실천활동 배가운동을 펼치고 있다.

서화천의 최상류지점인 금산군 추부면 용지리 마을과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마을이 쓰레기제로 마을만들기사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협약식을 갖고 주민참여의사를 재확인하였으며, 마을하천 중심의 쓰레기제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했다.

지난 5월2일 용지리마을 주민들은 50여명이 넘게 참여하면서, 이웃사촌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마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활동을 하는게 처음이라며, 이구동성 반가움과 적극성을 몸으로 표현했다.

“우리동네 사람들, 다같이 모인게 6년은 족히 될랑가 싶네요. 첨에 마을활동 필요한것에 동의하긴 했지만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게 여간해서 잘 안되더만, 오늘처럼만 모인다면야 우리마을 쓰레기걱정 없겠어요”

10여년전 용지리에 터를 잡았다는 50대 아주머니는 “도랑을 지나칠때마다 썩은 냄새가 났던게 음식물쓰레기를 상습적으로 버려왔기 때문인걸 오늘 알게 되었다”며 “엄청나게 심각허네요. 참말로”라고 현장의 악취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회관앞 도랑변 음식물쓰레기 상습투기지점에서 쓰레기를 파내고 또 파내도 끝이 없었다. 80kg마대 60개 이상 담아내도 그 끝을 알 수 없기에, 현장에서 주민간담회를 통해 2차 마을활동시 중장비를 동원하여 도랑내 썩은 퇴적토와 쓰레기를 파내고 주민들이 분리수거작업을 맡아 진행하면서 행정의 수거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기로 하고, 6월내 일정을 수립하여 진행키로 협의했다.

또한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마을는 5월22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 및 마을정화활동이 이어졌다. 이백리 서화천구간의 경우 특히 소각행위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어 이의 근절과 원상복구활동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 참여했던 실천마을의 경우 옥천군 군서면 은행리, 오동1리, 월전리, 옥천읍 마항리, 군북면 자모리가 자발적인 참여를 약속한 바 있다.

지난 5월6일 군서면 은행리에서 5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앞 교각을 중심으로 도랑정화활동을 시행하던 중, 2차선 차도와 도랑사이 곳곳에 특히 쓰레기를 대량 투기하여 수개월째 방치되거나 유박비료 등 퇴비를 오랫동안 적치함에 따라 마모된 비닐사이로 기름성분의 비료가 대량 하천으로 쏟아져내리는 등 오염원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지점에 대하여 주민들간 찬반양론이 이어졌다.

핵심은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라는 것. 마을주민들은 지칠데로 지쳤다. 언제까지 치우는 몫이 주민들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구동성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마을진입로 곳곳에 투기되는 쓰레기 때문에 마을이미지가 훼손된다는데에도 목소리가 크다. 행정의 단속이나 관리는 오래전 포기상태. 이에따라 서화천 수질개선 거버넌스 차원에서 작은 단위의 길거리화단을 제안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꾸미고 가꾸는 작은 활동을 도모하기로 결정했다.

이와같은 작은 단위의 모범사례를 시행한 이후 행정당국 차원에서 가로공원조성 등 친수시설을 확충하면서 쓰레기투기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기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서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진리를 새삼 확인하기도 했다.

5월7일 월전리에서는 4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관앞 비가림 쓰레기분리수거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교육과 천연비누만들기체험, 서화천변 마을정화활동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안전거리확보 및 열체크 등 안전수칙지키기는 기본, 실내에서 천연비누만들기는 4명까지만 들어가 만들고 이웃에 나누는 형태로 진행하면서 야외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 실천활동이 병행되었다.

한편 서화천 수질개선 거버넌스 운영위원회는 기존에 3년 이상 위촉된 위원 20명이 함께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사회적거리두기 완화조치이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하였으며, 4명의 하천모니터링단과 1명의 환경리더가 주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글 김재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팀장

맑은 회인천을 위한 활동 '시작!'

2021년에도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400만의 식수원인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해 지역의 주민분들과 함께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청호로 직유입하는 하천 중 하나인 회인천 유역 또한 수질개선을 위해 많은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인천 유역 수질개선 거버넌스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이장단협의회, 금강유역환경청, K-water 대청댐지사,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인천 수질개선을 위해 민관의 협의구조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제가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활동가로서 회인천 수질개선 거버넌스를 담당하면서 많은 활동을 해왔는데요. 올해도 회인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회인천 유역 가축분뇨 방치실태 조사, 비가림설치, 마을 정화활동 및 주민환경교육, 마을 하천 잡풀 및 잡목 제거, 비점오염원 저감 홍보활동, 회인천 유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 모니터링단을 조직하여 활동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커짐에 따라 마을 주민 찾아뵙는 것이 조심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비대면 방식의 활동을 먼저 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며 회인천 유역 마을 주민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인천 유역 수질개선 거버넌스 첫 번째 활동은 회인면 지역 방치된 축분 조사입니다. 2020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회인천 유역 마을 전체 지역을 돌아다니며 조사를 했습니다. 소멸된 축분, 연속적인 축분, 신규 축분 이렇게 나누어서 조사한 결과 46곳이 계속적으로 방치되어 있고 신규 방치 된 곳이 10곳이었습니다. 이번에 방치축분 조사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느낀 것이 예전에는 비가림을 하지 않고 방치된 축분이 많았는데 올해는 대부분 비가림이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회인천 지역 주민분들의 인식의 변화가 많이 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방치축분조사를 하면서 아쉽게도 비가림

비가림 설치 전

비가림 설치 후

하지 않는 축분들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이 되기 전 비가림 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김문석 신입 간사의 활약으로 비가 오기 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회인천 수질개선 거버넌스에서 주민들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단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확산세가 심하여 아쉽게도 발대식을 따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모니터링단 단원분들을 만나서 모니터링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 주민분들이 직접 조사하는 모니터링을 통해 회인천 비점오염원 현황을 파악하고 거버넌스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회인천 수질개선 거버넌스에서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홍보활동과 회인천 유입 도랑살리기 운동 및 주민환경교육 등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 속에서도 코로나 방역수칙 또한 준수할 것입니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줄어들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어 코로나19 이전처럼 활동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1차 이사회 개최

지난 3월 19일 오전 11시, 온라인 화상회의로 1차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는데 회의에서는 사무처장을 선임했음을 보고하였다. 상임이사제도의 신설에 따라 사무처장이 공석이었고, 임정미 정책국장을 신임 사무처장으로 선임한 것에 대해 보고한 것이다. 운영세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심의하였다. 운영세칙의 내용 중 기금출연기관에게 회계증빙서류의 제출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운영세칙의 일부사항을 개정하였고, 상임이사제도의 신설에 따라 일부 항목을 조정하였다.

정책연구위원회 전체회의 - 2021년도 활동계획 확정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배병욱 대전대학교 교수)는 지난 4월 30일(금) 1차 전체회의를 통해 활동계획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했다.

오전 9시30분, 청주 문의면 미천리 호반주차장에 정책연구위원 8명, 연구과제에 참여한 생태자문단 및 활동가 등 총 2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저감장치가 시범설치된 구간에서 견학을 마친 뒤 노현리까지 약 5km가량 대청호오백리길 도보탐사를 진행하면서 홍수조절지 경작으로 인한 환경오염사례를 확인했다.

노현리 인공습지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는 현장을 둘러보면서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크고 작은 습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 반면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어 노현리마을회관에 모인 24명. 노현리와 미천리 하천에 각각 시범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설명회 및 주민간담회가 이어지면서 마을주민들의 환경의식이 조금씩 긍정적이고 실천적으로 변해가는데 민관거버넌스 지원활동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는 주민대표자들에게서 밝은 희망이 비쳐졌다.

한편 올해 정책연구위원회는 '대청호유역 주민 물복지 불평등 실태조사 및 해결방안연구'와 '국내 상수원지역 수질개선 모범사례 발굴 및 대청호활용방안연구' 등 2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지역현안모니터링 및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대청호유역하천센터 1차 운영위원회 개최

1차 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 11일(화) 오전 11시,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화상회의로 개최한 것이다. 대청호유역하천센터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부설기관으로 하천감시조사활동,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실천활동 등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각 지역네트워크 대표 및 하천감시단 대표, 네트워크 팀장, 지자체 환경과 등에서 20여명이 참석하였다. 4월에 실시한 하천조사 결과를 보고 및 논의하고 쓰레기 없는 마을만들기 사업 보고,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실천 활동 계획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지역별 하천감시단 환경교육 및 간담회를 어떻게 할지 세부계획을 논의하였다.

사무처 신입 활동가 인사글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글 **김문석**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간사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청호보전운동본부에서 새롭게 일을 하게 된 김문석 간사입니다. 대전 및 세종, 충청의 중요한 보물인 대청호와 관련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영광이자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청호는 특히 저에게 있어서도 매우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저의 고향이자 거주지가 신탄진이기에 대청호는 매우 친숙하고 정겨운 곳입니다. 운동이나 산책을 하러 금강로하스 길을 걷다보면 대청호의 경관과 풍경으로 인해 자주 힐링이 되곤 했습니다.

올해 3월에 대청호보전운동본부에서 신입 활동가를 채용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더니 현재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에서 실제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많이 서툴지만 마을도 돌아다니고, 여러 설명회에 참석하면서 차근차근 일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의 가치관은 환경을 사랑하자는 것인데, 이를 실천하기 위해 텀블러 사용하기, 분리수거 등등 소소한 습관을 잘 실천해왔습니다. 또한 물의 중요성도 잘 알기에 물도 아껴 쓰며, 되도록 낭비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청댐 홍수터, 금강의 생태적 가치를 더하다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정종선)은 지난 29일 K-water와 함께 대청댐 홍수터 수변생태벨트 조성 시범사업 완료 지역인 충북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에서 '주민참여형 수변생태벨트 생태건강성 증진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강유역환경청, 옥천군, K-water 금강유역본부 및 대청지사,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청호 홍수터 내에서 나비 먹이식물 심기 등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대청댐 홍수터의 비점오염 저감과 더불어 다양한 생물의 서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나비의 먹이가 되는 식물인 엉겅퀴, 제비꽃, 방풍나물 등을 심었다.

이번 행사 후 K-water에서는 조성지에 대한 수질 분석과 생태계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효과를 검증한다.

정종선 청장은 "대청댐 상류 댐 홍수터에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함으로써 금강상류 지역의 비점오염원을 저감하여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에 지역민 참여를 확대하여 소득 창출을 창출하고,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매일】2021. 5. 2 오동겸 기자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 구성 추진

충북 옥천군이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등 환경규제를 적용받는 대청호 유역에 위치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청호 정책협의회' 구성에 나선다.

특히 군은 대청호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협의회 구성에 나선 것으로 향후 지역주민 권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청호 정책협의회는 △대청호 관련 법령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대청호 관련 정부시책에 관한 사항 △대청호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대청호 유역의 지역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연구 · 협의 · 자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협의회는 옥천군수를 포함한 공동위원장 2명과 △옥천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문화관광, 경제, 농업 등 주요 군정시책 관련 공무원 △지역의 민간사회단체 및 주민대표성을 갖춘 사람 △지역발전 및 환경 분야에 관심이 있는 옥천군민 또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 △친환경농업, 축산업, 관광, 문화산업, 경제 분야 등에 종사하는 사람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모두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김재종 군수는 "옥천군이 그동안 대청호와 관련된 각종 규제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만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시스템을 갖춰 권익 향상을 이끌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며 "협의회는 사적 이익을 배제하고 지역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역할을 수행할 위원들을 구성해 대청호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매일】2021. 5. 10 황의택 기자

용담댐 물 더 쓰겠다는 충청, 못 주겠다는 전북… 물 분쟁 조짐

충청권 4개 지자체는 "용담댐에서 나오는 물이 적을수록 대청호 용수의 체류기간은 더 늘어나 550만 충청권 시민의 식수 수질이 더 악화될 것"이라며 "용담댐 물을 재분배할 때 기존 대청댐 수리권을 인정하고, 인구 증가 추이를 고려해 공급량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권 역시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물 분쟁 조정신청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최근 정읍시의 수원지를 섬진강댐에서 용담댐으로 대체하고, 전주·익산·완주 지역 공업용수 취수지를 만경천에서 용담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전북은 현재 135만t이라는 용담댐 물 공급량에 맞는 물 수요를 맞추기 위해 자체적으로 용수공급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은 댐 기본계획 당시 설정한 135만t의 물을 모두 사용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3년간 전북의 물 사용량을 조사했더니 용담댐 공급량 103만t 중 65만9000t만을 사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충청권 4개 시도는 설명했다.

반면 충청권 4개 시도는 현재 550만 명에서 57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가 예상보다 적다 보니 전북은 현재 용담댐에서 공급하는 물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통계청이 발표하는 인구 통계 추세를 보면 전북 인구는 2045년이면 160만 명으로 더 줄어든다.

충청권은 1991년 만든 용담댐 활용 기본계획의 전북권 인구 예측이 100만 명 가까이 부풀려지는 등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용담댐 기본계획에는 2021년 전북 인구를 389만 명으로 과대 계상했다가 주변 반발이 거세지자 270만 명으로 낮췄다"며 "하지만 현재 전북 인구는 179만 명으로 계획보다 100만 명가량 더 적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구가 적으면 물 공급량도 그만큼 줄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내년 물 재배분을 앞두고 충청권은 인구증가로 물 수요가 늘어난 만큼 물 공급량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북은 1991년 수립한 기본계획 안으로 돌아가 충청권 배정 용수량을 줄어야 한다고 맞서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북에 너무 많은 물이 공급된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2002년부터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충청권에 75만t, 전북에 103만t을 공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지난 2001년 금강유역 금강수계에 건설된 용담댐의 하루 물 공급량은 178만t인데 1991년 댐 기본계획을 만들 당시 전북에 135만t, 충청권에 43만t을 공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용담댐은 충청권과 전북 간에 20년간 한시적으로 체결한 물 배분 계획이 올해 말로 만료돼 조만간 재조정해야 한다.

6일 충청권 지자체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북 등 4개 시도는 최근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 금강물관리위원회에 전북 용담댐 물 공급량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금강 상류지역에 설치된 용담댐의 용수 배분을 놓고 충청권 4개 시도와 전북이 분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화일보】2021. 5. 6 김창희 기자

하천변에 제초체 살포한 금산군…주민 항의받고 중단

충남 금산군이 경관 작물을 재배하려고 하천변에 제초제를 살포하다가 주민 항의를 받고 중단했다.

26일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산군 금산읍 환경사업소 앞 금산천에서 금산농업기술센터 직원이 하천변에 경관 작물로 유채꽃을 재배하려고 제초제를 살포했다.

이를 목격한 주민이 항의하자 직원은 제초제 살포를 중단하고 철수했다.

이와 관련해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측은 "하천에 제초제를 살포하는 행위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불법행위"라며 "현장을 목격한 주민이 없고 항의가 없었다면 제초제를 얼마나 살포했을지 끔찍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환경을 보호하고 법령을 준수해야 할 관공서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에 놀라움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금산군은 제초제를 살포한 경위와 구체적인 면적 등을 공개하고 책임자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금산군 관계자는 "금산천 주변에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천 유역 바깥에서 휴대용 장비를 이용해 5m가량 부분적으로 제초제를 뿌렸으나 주민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어 이를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2021. 3. 26 조성민 기자

대청호 유역 쓰레기 수거 맡는 사회적기업 생긴다

충북 옥천군의 대청호 내 쓰레기를 상시 수거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긴다.

6일 옥천군에 따르면 이 지역 주민 30 50명은 이달 중 사회적 협동조합 '금강'을 구성한 뒤 환경부에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는 주민 주도의 쓰레기 수거 체계를 만들자는 옥천군의 건의를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용하면서 추진됐다.

'금강'은 대청호 상류에서 발생하는 하천 쓰레기를 상시 수거하고 불법투기 감시, 대청결운동 캠페인을 하게 된다.

다만 장마나 태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청호 내 대규모 쓰레기 수거 작업은 '금강'이 아닌 한국수자원공사 주축으로 이뤄진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2019년부터 지역민을 고용한 쓰레기 상시 수거체계 구축을 요구한 끝에 올해 결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2021. 4. 6 심규석 기자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에 보호종 27종 등 조류 156종 서식… 환경운동연합 발표

대전에는 법적보호종 27종 등 총 156종의 조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이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지난 10년간 지역 조류를 관찰·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대전시 자연환경조사 및 환경연합 월평공원 생태조사·갑천, 유등천, 대전천 등 3대 하천 겨울철새 조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관찰 조류를 모두 종합한 수치다.

정리된 조류는 총 156종이며, 이 중 법적보호종은 27종에 이른다. 시 자연환경조사에서는 각각 92종, 10종으로 집계됐지만,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니터링으로 더 많은 종수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연합은 5~10년 주기로 진행하는 자연환경조사의 한계가 있는 만큼, 실제 서식 조류 종수는 이번 종합 결과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연환경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보호종 17종은 큰고니, 큰기러기, 가창오리, 붉은가슴흰죽지, 호시비오리, 참수리, 참매, 조롱이, 매, 쇠황조롱이, 비둘기조롱이, 칡부엉이, 쇠부엉이, 올빼미, 솔부엉이, 팔색조, 삼광조(긴꼬리딱새) 등이다.

주요 서식지점은 3대 하천과 둘레산을 중심으로 한 식장산, 도덕봉, 월평공원 등 녹지로 나타났다.

환경연합은 "녹지 보전을 통한 조류 서식지 유지 및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가 깃대종 지정 보호를 비롯해 조류 서식처 보전에도 앞장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옥천군

옥천 대청호 연안마을에 '로컬푸드전시판매장' 생긴다

대청호 연안인 충북 옥천군 안남면에 로컬푸드전시판매장이 들어선다.

옥천군은 안남면 연주리에 위치한 로컬푸드전시판매장(66㎡)과 주차장(3908㎡)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했다고 5월 6일 밝혔다.

판매장은 군이 지난해 군비 7억원을 들여 건립했다.

이 로컬푸드전시판매장은 6월부터 비영리법인 단체인 배바우청정정보화마을이 운영한다.

안남면 지역특화사업으로 조성한 로컬푸드전시판매장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청정 농특산물과 생산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한다.

안남면은 옥천의 콩 재배면적(236.3ha) 중 가장 넓은 50ha에서 연간 콩을 85톤 정도 수확하고 있다.

로컬푸드전시판매장 인근에는 거꾸로 된 한반도 지형을 볼 수 있는 둔주봉과 수려한 경관의 대청호가 자리해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다.

군 관계자는 "로컬푸드 판매장이 운영되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목적 달성과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무주 푸른꿈고등학교

환경동아리인 환.생,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활동 내일신문에 소개

3년간 무주지역에너지컨설팅을 하는 환.생 동아리 학생들의 이야기가 내일신문에 소개되었다. 환.생 동아리 학생들은 온실가스로 인해 뜨거워진 지구를 살리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보였다. 특히 온실가스 진단 및 컨설팅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자격증까지 따는 열정도 있었다. 동아리대원들은 지난 3년 간 무주 지역의 에너지컨설팅을 도맡아 하기도 했다. 또한 집집마다 찾아가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조언하는 역할도 수행했었다.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 댁에는 단열캡이나 문풍지를 붙이는 활동도 했다고 밝혔다. 이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면서도 에너지낭비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에너지 컨설팅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갖가지 노력을 한 끝에 푸른꿈고등학교 환.생 동아리원들의 발자취가 내일신문에 게재될 수 있었던 것이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환경연합 "충북 종합계획, 온실가스 저감계획으로 수정해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21 2040)'을 온실가스 저감계획으로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해 탄소감축 효과 등을 따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행정체계를 탄소중립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4차 종합계획은 아직도 개발 중심으로 채워져 있다"며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충북도는 충북, 강원, 세종, 대전을 잇는 강호축을 중심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종합계획(2021 2040년)을 내놨다.

교통·물류 기반의 인프라 구축으로 충북을 국가교통의 중심이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9회 임길진환경상 '천안아산환경연합 서상옥 운영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임길진환경상 위원회(위원장 이시재)는 4월 21일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제9회 임길진환경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수상자는 천안아산환경연합 서상옥 운영위원장으로 상패와 상금 700만원을 수여했다.

서상옥 운영위원장은 2020년 '공원일몰제 민간개발 특례사업'으로 훼손될 위기에 처한 일봉산 공원을 지키기 위해 2019년 11월 20여일 간 '6.2m 참나무 고공 농성'을 벌였다.

또한 2020년 전국 최초 도시공원 관련 주민투표 운동을 조직해 현장 중심의 지역운동을 이끌었고, 도심의 녹지를 지키기 위해 시민의 참여와 인식제고, 환경 민관협의체 구성, 지역문화제 보전 운동을 이끌어 지역을 바탕으로 하는 전국적인 환경 현안 문제 해결하는데 앞장섰다.

임길진환경상은 생태민주주의의 확대와 환경운동이 한국 전역과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수 있는 초석을 다진 평사(平士) 故 임길진 박사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2013년 제정됐으며 지속가능한 공동체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풀뿌리 환경운동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무주네트워크

사무국 / 반딧불산나물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무주군자연보호협의회, 무주 4-H본부, 무주군친환경농업반딧골연합회, 무주환경사랑, 무주푸른꿈고등학교, 반딧불산나물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부남면 가당리 하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상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가정마을, 부남면 굴암리 상굴암, 부남면 굴암리 하굴암, 부남면 고창리, 무주읍 장백리, 안성면 덕산리, 설천면 기곡리, 무주읍 내동마을, 무주군

금산네트워크

사무국 /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산참여연대, 자연보호협의회 금산지부, 금산군작목별연구협의회, (사)정심회, 전국축협노동조합 금산지부, 전교조금산지회,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성면 의총리, 제원면 용화리, 제원면 명곡2리, 제원면 명곡3리, 제원면 신안리, 부리면 수통리, 부리면 어재리, 남일면 신정리, 남일면 황풍2리, 추부면 성당리, 제원면 저곡1리, 금산군

영동네트워크

사무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천모산유기영농조합, 한살림영동공동체생산자모임, 영동지역아동센터연합회, 양산면 봉곡리, 양산면 수두리, 학산면 지내리, 양강면 죽촌리, 심천면 고당2,3리, 양강면 구강리, 용산면 한석리, 황간면 회포리, 영동군

옥천네트워크

사무국 / 대청호주민연대

대청호주민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옥천흙살림, 옥천군자연환경보호지도협의회, 옥천순환경제공동체, 옥천신문사, 안내환경사랑실천단, 옥천살림 영농조합법인, 옥천식생활교육네트워크, 영농조합법인 안남배바우공동체, 대청호수난구조대, 군북면 석호리, 군북면 항곡리, 동이면 석탄리, 청성면 합금리, 청성면 산계리, 청성면 고당리, 청산면 장위리, 안남면 도덕리, 옥천군

보은네트워크

사무국 /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보은사회복지협의회, 전교조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남면 분저리, 회남면 산수리, 회인면 부수2리, 내북면 두평리, 탄부면 임한리, 탄부면 상장2리, 마로면 기대리, 보은읍 성족리, 보은읍 종곡리, 보은군

대전네트워크

사무국 /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YWCA, 대전YMCA, 해병전우회대전시연합회,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마당극단 좋다, 한국잠수협회 대전지부, 동구 직동 찬샘마을, 동구 세천동, 동구 주산동, 대덕구 이현동, 대전시 동구, 대전시 대덕구, 대전로컬푸드라온아띠협동조합

청주네트워크

사무국 / 사)풀꿈환경재단

충북생명의숲,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산단환경발전협의회, 청주지역자활센터, 청주팔백리,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풀꿈환경재단, 문의면 구룡리, 문의면 노현리, 문의면 두모리, 문의면 묘암리, 현도면 시목2리, 문의면 괴곡리, 청주시

천안아산네트워크

사무국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시사립작은도서관연합회, 불당대동다숲아파트 도시농부단, 천안시

■ 네트워크외 : K-water,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소모임 : 대청호해설사